

# 가을타짜 이지영 “PS 포수는 더 신중해야죠”

준PO 1차전 벤틀타구 병살타 유도 단기전 팀 승리 이끈 베테랑의 관록 “난 투수 부담 덜어주는 역할을 할 뿐”

LG 트윈스와 키움 히어로즈의 준플레이오프(준PO) 야구 엔트리 전원의 한국시리즈(KS) 우승반지를 합쳐도 이지영(33·키움)이 가진 것보다 적다. 우승 포수의 관록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키움의 포스트시즌(PS)이 예년과 다른 이유는 이지영 존재감 때문이다.

이지영은 삼성 라이온즈 시절인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년 연속 KS에 직행해 마스크를 썼다. 이 중 2015년을 제외한 3년간 왕좌에 올랐다. 올해 준PO 야수진 가운데 KS 우승 경험이 있는 건 이지영과 LG의 김현수(2015년 두산 베이스), 이성우(2018년 SK 와이번스) 뿐이다.

현장에서는 신인 포수를 1군 주전감으로 만드는 데 최소 5시즌 이상 걸린다고 한다. 좋은 포수를 키워내기란 그만큼 힘들다. 그라운드에서 서는 것만으로도 부담이 되는 KS에서 상대와 수싸움에서 이기고 우승을 이끄는 포수의 육성은 더욱 어렵다. 지난해 김재현(26·현 상무), 주효상(22) 등 젊은 포수에 의존해야 했던 키움에게 이지영의 관록은 ‘믿을 구석’이다.

6일 준PO 1차전에서 이렇듯 경험이 빛을 발했다. 0-0으로 맞선 8회 무사 1루, 포수 유강남이 번트를 시도하자 이지영은 투수 김상수에게 높은 속구 사인을 냈다. 번트 경험이 적은 유강남이 공을 띄우자면, 1루주자도 움직이기 힘들기 때문에 병살타를 만들 수 있을 거라는 판단이었다. 이지영의 판단은 적중했

고, 키움은 실점 없이 위기를 넘겼다. 투수 리드도 마찬가지였다. 키움은 1차전 제이크 브리검~조상우~김상수~오주원으로 투수들을 짧게 끊어 썼다. 장정석 키움 감독의 예고대로였으며, PS 내내 이러한 기용이 이어질 전망이다. 포수로서는 많은 투수와 호흡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부담스러울 수 있다. 그러나 이지영은 “1년 내내 호흡을 맞췄던 선수들이다. 단기전은 투수 싸움이다. 부담은 내가 아닌 투수들이 느끼고 있을 텐데, 난 그걸 덜어주는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가을 타짜’ 이지영에게 정규시즌과 PS의 차이를 물었다. 그는 “포수는 조금 더 신중해져야 한다. 그러면서도 볼넷 허용을 두려워하면 안 된다”며 “1점을 탈 준다는 게 목표이자 결과가 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과정 중에 볼넷 허용 한두 개쯤은 괜찮다”고 강조했다. 9이닝당 볼넷 허용 2.61개(최저 1위)였던 키움은 준PO 1차전에서 4사구 4개를 내줬다. 가장 좋은 투수들이 가장 신중하게 던졌지만, 4사구는 약간 늘었다. 그러나 실점은 없었다. 이지영의 전략은 성공이었다.

여기에 ‘파트너’ 박동원(29)의 존재도 이지영을 강하게 만든다. 무릎 부상을 당해 준PO 합류가 불투명했지만, 이를 딛고 정상 출장이 가능하다. 2차전 에릭 요키시의 전담 포수로 출격한다. 이지영은 부담감에 대해 묻자 “2차전은 재(박동원)가 나간다”라며 “정말 다행이다. 개인 출장 욕심보다 팀의 시리즈 통과가 목표다. 그걸 위해서는 서로 역할을 나눠야 한다”고 설명했다.

어쩌면 이지영이 가진 ‘PS 비결’은 노하우, 수싸움이 아닌 이러한 ‘원 팀 정신’일지도 모른다.

고척 | ing17@donga.com



키움 포수 이지영(위)은 6일 LG와 치른 준PO 1차전에서 지능적인 볼 배합과 투수리드로 1-0 승리를 이끌었다. 삼성 시절부터 쌓아온 풍부한 단기전 경험이 밑바탕이다. ‘원 팀’을 강조하는 이지영의 가을여정이 기대된다. 고척 | 김진환 기자 kwangshin00@donga.com

## ‘코치 11명’ 짐 싹 롯데 전면개혁 가속도 내다

시즌 후 코칭스태프의 조정은 어느 팀이나 거쳐야 할 통과야이다. 하지만 11명과 동시에 결별하는 건 구단 입장에서도 위험 요소가 다분하다. 롯데 자이언츠가 그러는 2020시즌 이후의 반전을 위한 개혁은 이미 시작됐다.

롯데는 7일 코칭스태프 결별 소식을 전했다. 주형광 퓨처스 투수코치를 비롯해 김승관, 손인호 타격코치, 김태룡 수비코치 등 11명이 롯데를 떠났다. 올 시즌부터 본격적으로 1군 지도자의 길을 걸었던 손용석, 이우민 코치도 정리 대상에 포함됐다. 올 시즌 롯데 1군을 이끌었던 인물 중에는 최기문 배터리코치, 임경완 투수코치, 홍민구 불펜코치만 내년에도 롯데에 남을 전망이다. 다만 구체적인 보직은 새 감독 선임 뒤 결정될 예정이다. 공필성 감독대행의 거취 역시 마찬가지다.

지난달 부임한 성민규 롯데 신임감독은 ‘프로세스’를 기반으로 한 리모델링을 선언했다. 이를 위해서는 전면 개혁이 필요하다. 부임 후 선수단과 코칭스태프에 잇달아 메시지를 대는 것은 부담스럽지만, 확실한 리모델링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롯데는 성 감독 주도로 퀄리티 컨트롤(QC) 코치의 도입을 추진 중이다. 여기에 신임감독이 선임된다면 긴밀히 소통할 코치진 조각도 빠르게 이뤄질 전망이다. 포스트시즌이 한창인 가운데 롯데의 2020시즌은 이미 시작됐다.

최익래 기자 ing17@donga.com

## ‘NPB 400승’ 재일교포 가네다 별세



가네다

일본프로야구(NPB)에서 전인미답의 통산 400승을 기록한 한국계 일본인 가네다 마사이치(한국명 김경홍)가 6일 일본 도쿄도 내 한 병원에서 급성 담관염에 따른 패혈증으로 별세했다. 향년 86세. 재일교포 2세로 아이치현에서 태어난 가네다는 프로 입단 이후인 1959년 일본으로 귀화했다. 1950년부터 1969년까지 고쿠테쓰 스알로즈와 요미우리 자이언츠에서 투수로 활약하며 통산 944경기(569선발)에 등판해 400승298패, 평균자책점 2.34의 성적을 거뒀다. 특히 1951년부터 1964년까지 두 차례 30승 이상을 기록하는 등 14시즌 연속 20승이라는 엄청난 기록을 만들어내며 NPB 최고 투수에게 주는 사와무라상을 세 차례 수상했다. 승리를 비롯해 완투(365회), 삼진(4490개), 이닝(5262.2이닝) 등은 NPB 최다 기록이다.

한편 마이니치신문은 가네다의 기록과 관련해 “지금은 투수의 부상 방지 차원에서 선발투수의 투구수를 제한하고, 선발과 계투, 마무리 등 분업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그때는 지금과 같은 구분이 없었기에 가능했던 기록”이라고 평가했다.

강산 기자

## ‘히어로즈맨’ 송지만 “올해가 키움 우승 적기”

### 플인 레전드

“흐름의 싸움에서 일단은 유리 투수들, 야수에 대한 믿음 커”



송지만 SPOTV 해설위원은 히어로즈의 레전드다. 선수와 코치로 동고동락한 선우배, 동료들이 많이 버리고 있는 만큼 올 가을 키움의 비상을 그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있다. 스포츠동아DB

송지만 SPOTV 해설위원(46)은 자타공인 ‘히어로즈맨’이다. 키움 히어로즈의 창단 첫해인 2008시즌부터 지난해까지 단 한 번도 버건디색 유니폼을 벗은 적이 없고, 키움의 전신 격인 현대 유니콘스 선수 시절에는 한 차례 우승(2004시즌)까지 맞았다. 2014시즌이 끝나고 유니폼을 벗은 뒤 4시즌 동안 코치로 일하며 지도력을 인정받았다. 그러다 보니 팀에 대한 애정이 그

## 진해수 “수도방위사령관? 별명값 하고 싶다” (LG)

2016년 가을무대 6경기서 무실점 “평정심 유지하며 내 공 던지겠다”



LG 진해수

“팬들이 붙여준 별명이잖아요.” LG 트윈스 좌완투수 진해수(33)에게는 매우 특별한 별명이 있다. 서울을 연고로 하는 LG에서 중간계투로 항상 든든하게 팀을 지킨다는 이유에서 ‘진해수도방위사령관’이라는 애칭이 붙었다.

2019 KBO 포스트시즌은 와일드카드(WC) 결정전부터 한국시리즈(KS)까지 모두 ‘수도권’에서 열린다. 창원을 연고로 하

는 NC 다이노스가 WC에서 LG에게 패하며 지방팀이 모두 물러났다. 상위 시리즈에서 기다리고 있는 SK 와이번스, 두산 베

만큼 강할 수밖에 없다. 특히 ‘히어로즈 시대’에 대한 사랑은 엄청나다. 2007시즌을 끝으로 현대가 해체되고 히어로즈가 창단하는 과정을 온 몸으로 느낀 터라 더욱 그렇다. “많이 애착이 간다. 그만큼 신경도 쓰이고, 응원도 많이 하고 있다. 지금 장정석 감독님을 비롯한 코칭스태프와 선수들, 프런트까지 모두 히어로즈 창단 당시 유여폭질이 많았기에 우승이라는 목표에 더욱 의미를 두고 싶다.” 6일 키움과 LG 트윈스의 준플레이오프(준PO) 1차전 직후 전한 송위원의 진심이다. 박병호의 끝내기 홈런을 두고 “스타의 DNA가 확실히 있다”는 칭찬도 빼놓지 않았다. 히어로즈의 우승을 바라는 마음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 시즌을 거듭할수록 팀이 강해지고 있다는 것도 느낀다. 한발 떨어져 바라본 히어로즈의 전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단기전은 흐름 싸움이다. 흐름을 내주지 않는 것 같다.

1차전에는 김용빈이 3루수로 나왔는데, 박병호가 김용빈까지 커버한다는 느낌을 받았다. 누가 들어오든 기존의 선수가 커버해주는 유기적인 플레이를 하고 있다. 무엇보다 히어로즈 투수들이 ‘야수들을 믿는다’는 느낌이 강하다”고 흐뭇함을 감추지 않았다. 2018시즌을 끝으로 잠시 현장을 떠났지만, 야구 공부는 쉬지 않았다. 해설위원으로 일하며 시야를 넓히고 있다. 한층 더 발전한 야구인이 되기 위한 준비과정이다. “확실히 무엇을 공부해야 할지 구체적인 계획이 잡혔다. ‘밖에서 보면 시야가 넓어진다’는 말을 실감한다”고 밝힌 송위원은 “어려운 시절을 이겨낸 사람들이 있기에 지금의 히어로즈도 있다. 물 들어올 때 노 젓자는 얘기 있듯, 올해가 우승 적기다. 우승을 차지한다면 동고동락한 사람들도 기뻐할 것”이라는 응원도 빼놓지 않았다. 고척 | 강산 기자 posterboy@donga.com

어스 역시 인천과 서울을 연고로 하고 있는 팀들이다. 진해수에게는 의도치 않게 ‘별명값’을 할 수 있는 무대가 마련됐다. 이와 관련된 질문에 진해수는 “팬들이 붙여준 별명 아닌가. 나도 오래 전에 들어 잘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특별히 생각 해본적은 없지만, 팬들이 붙여준 별명이나 올해는 한번 별명 값을 해보고 싶다. 개인적으로 두 번째 가을야구인데, 잘 하고 싶은 마음이 크다”고 전했다. 진해수는 2006년에 KIA 타이거즈에서 프로 데뷔를 한 베테랑이지만, SK와 LG로 팀을 옮기면서 가을야구는 2016년에 단 한번만 경험했다. 그 해 준플레이오프(준PO)와 PO에서 6경기 무실점을 기록해 최고

의 활약을 펼쳤다. 이런 진해수의 경험에 LG 류중일 감독 역시 큰 신뢰를 보였다. 류 감독은 이미 “7회와 8회에는 진해수와 정우영을 통해 승부를 볼 생각이다”라고 불펜 운영안을 밝혔다. 실제 진해수는 올해 정규시즌에서도 72경기 3승1패20홀드 평균자책점 3.43으로 좋은 모습을 보였다. 진해수는 “가을야구는 역시 ‘멘탈’ 아니겠다. 정규시즌보다 ‘더 잘 해야지’라는 생각으로 욕심을 내서는 안 된다”며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게 똑같은 마음으로 편하게 내 공을 던져야 나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최선을 다 해보겠다”고 다짐을 전했다. 고척 | 장상승 기자 award@donga.com